III. 해외마케팅.투자정보 하이라이트

■ 한국 조선업 호황을 이끄는 노르웨이 진출 我國 조선 4사

□ 조선업계 수주 호황으로 최대 수주 기록 전망

- 노르웨이 진출 조선업계에 따르면, 조선경기의 호황이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, 현대미포조선 등 노르웨이 진출 조선 4 사들은 금년 선박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였음.
- 1/4 분기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두 배를 넘어섰고, 한국이 470 척, 1,675 만톤을 수주함으로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수주 기록을 경신하여 금년에도 선박수주 1 위 자리를 고수할 가능성이 큼. 고부가 선박 수주확대와 船價 상승 등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.

□ 노르웨이 진출 조선 4사의 수주 동향

- 노르웨이 진출 조선 4 사는 신규 조선 수주가 밀려 2~3 년의 작업물량을 이미 확보하였고 최근 선박 건조가격이 크게 올라,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.
- 세계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은 오슬로 지사에서 금년초 노르웨이 빌헬름센사로부터 자동차 6,500 대를 선적할 수 있는 자동차 운반선 2 척 (1 억 1 천만불 상당)을 수주하는데 힘입어, 1/4 분기에 초대형 유조선(VLCC), 대형 컨테이너선, LNG 선 등 고수익 선박 위주로 총 54 척, 39 억 4,500 만불을 수주하였음. 이는 금년 목표금액(44 억 5,500 만불)을 거의 달성한 것이며, 향후 2006 년 말까지 작업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음.
-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(LNG 선) 시장점유율 세계 1 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오슬로 지사에서 금년초 스웨덴 발레니우스사로부터 PCTC 선 2 척 등 총 3 척 (1 억 8 천만불 상당)을 수주하는데 힘입어, 올들어 총 15 억 5 천만불 상당의 선박을 수주하였음.
-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노르웨이 골라사의 13 만 8 천m³급 LNG 선을 선주측에 인도하였는데, 2002년 9월 국내 최초로 해외로 LNG 선을 수출한 지 1년 7개월만이며, 척당 1 억 6 천여만불상당의 LNG 선을 국내 조선소 중 최초로 10 척째 완공하여 해외 선주에 인도한 것으로 국내 조선사에 이정표를 세웠음.
- 중소형 석유제품 운반선(PC 선) 시장점유율 세계 1 위 기업인 현대미포조선은 오슬로 지사에서 컨테이너선 4 척 (1 억 6 천만불 상당)을 수주함으로써 PC 선을 주력으로 선종다각화를 실현하였고, 1/4 분기에 49 척, 17 억 2 천여만불의 수주실적으로 올 목표(17 억불)를 이미 달성하였음.

-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14 척, 12억 6천만불을 수주해 1/4 분기에 연간목표(25억불)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였음. 삼성중공업 오슬로 지사는 금년 3월 유조선, 고급여객선 등 3척 (2억불 상당)을 수주하였는데, 특히 노르웨이 비켄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2척은 내빙설계된 'ICE-class'라는 특수사양을 채택한 11만 3천 DWT (아프라막스)급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항로에 투입될 예정임. 삼성중공업은 향후 3년 이상의 작업 물량에 상당하는 100억불 규모의 물량을 수주잔량으로 확보한 상태임.

□ 선가 상승으로, 조선업계 선별 수주활동 전개

- 최근 선박가격이 오름세를 지속 이어가는 추세로서 30만 DWT 급 초대형 유조선(VLCC)은 국제 선가가 8천만불까지 올랐으며, 17만 DWT 급 벌크선도 5천만불에 달하고 있음. 이는 국제 선가가 최저가를 기록한 지난 2002년말에 비해 무려 25%나 상승한 것으로 노르웨이 진출 조선업계는 국제 선가 상승에 따라 선별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.
- 노르웨이 진출 조선업계에 의하면, 물동량 증가와 선박 부족 때문에 선박 발주가격이 지속 오르고 있고, 금년도 원유, 철광석, 컨테이너화물 등의 물동량 증가로 선가는 더 상승할 전망이다.
- 노르웨이 진출 조선 4사는 올해 고가격·고기술·고부가 등 3대 수주원칙을 정하여, 선별 수주로 수익 극대화 및 불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.

(문의처 : 오슬로무역관 홍창석 hongga@kotra.or.kr)